

사회

“9월 반값 등록금 결국 속았다”

1조5000억 장학금 일부 저소득층에만 집중

학부모·학생 “최소 100만원 내릴 줄 알았는데...”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압박 속에 최근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서민 계층이면 누구나 등록금으로 고통을 겪는 현실에 비추면, 이번 대책은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집중될 뿐 대부분의 학생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매우 미약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 1조5000억원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대학의 자체재원 7500억원 투입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은 5% 정도 낮아지며, 소득 하위 70%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

상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된다.

정부의 몫 1조5000억원의 모두 국가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이중 절반은 소득 하위 30%까지의 학생에게 저소득층 장학금(국가장학금 I형)으로 준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 대상을 소득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지급기로 한 것. 나머지 절반은 각 대학에 나눠줘 소득 하위 70% 이하 학생에게 생활여건과 성적을 감안한 장학금(국가장학금 II형)으로 지급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대학이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면 서도 정작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은 사실상 줄어들지 않았으며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

■정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구분	규모	지원대상	지원경로
국가장학금 I 유형 (저소득층 지원)	75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 450만원, 1분위: 225만원, 2분위: 135만원, 3분위: 90만원	정부 재원을 대학 경유해 학생에게 지급
국가장학금 II 유형 (대학 저소득층 연계 소득하위 7분위까지 지원)	7500억원	기초생활수급자·소득 하위 7분위까지 대학이 학생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장학금 지급 (평균 58만원)	
대학 저소득층 유도	7500억원	대학들이 스스로 마련	

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서민들은 “반값 등록금 한데다가 흑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광주지역 사립대는 대부분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원(인문·사회계열 기준) 내외여서 저소득층 아닌 서민 가정의 경우 부담이 20만원 정도 밖에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등록금 절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학생들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학우들에 대한 혜택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국민의 거센 반값등록금 요구를 꺾기 위한 미봉책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교과부가 7500억원의 장학금을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주기로 한 ‘국가장학금 II형’의 경우도 B학점 이상에만 지급기로 해, 생활고에 시달려 정상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학 2학년생을 자녀로 둔 회사원 김모(47·광주시 북구 문흥동)씨는 “비싼 등록금 탓에 하나 뿐인 아들이 학비에 보태다며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 “서민 입장에서 등록금이 최소한 100만원 이상, 30% 이상 줄어야 숨을 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우나서 이틀새 수천만원 털려

70대 노인 송편 먹다 질식사 추석 연휴 사건 사고 잇따라

추석 연휴기간 광주·전남지역에서는 70대 노인이 송편을 먹다가 호흡 곤란으로 숨지는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1일 오후 4시15분께 영암군 시종면 모 요양원에서 민모(77) 씨가 송편을 먹다가 호흡곤란으로 실신한 것을 요양원 관계자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민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민씨가 추석을 맞아 송편을 먹다가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3일 오전 6시15분께 장흥군 용산면에 사는 백모(65)씨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과 닭 2만 마리가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에서 불길기 치솟았다”는 양계장 주인

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한 사우나에서 이틀 새 수천 만원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1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의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고급시계 등 시가 1550만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이 사라졌다.

전날 새벽 5시께에는 이 사우나에서 한 남성이 2000만원 상당의 어음 2장을 도난당했다. 경찰은 이 사우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파악 중이다.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11일 낮 12시15분께 무안군 해제면 유월사거리에서 1t 화물차와 승용차 2대 간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9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에는 목포시 용해동 한 도로에서 택시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추돌, 8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연휴 기간 동안 사고가 계속됐다.

중부취재본부=이상우기자 lsh@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기습기 살균제 피해 정부 발표보다 많아”

환경보건시민센터

출산 전후 산모들에게 발생한 폐질환의 원인으로 기습기 살균제가 지목된 가운데 그 피해자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렴 등으로 사망한 영·유아가 수백여명에 이르는 데 상당수가 기습기 살균제를 쓴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 발표 이후 영·유아 유증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정부는 서울 소재 대형 병원 한 곳에서 20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며 “그러나 20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 영·유아는 성장기 민감 계층으로 화학물질에 취약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호기자 kimho@kwangju.co.kr

황당한 비극

아파트서 벽돌 맞은 40대녀 결국 사망 고층건물 옥상 출입문 관리 대책 절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 단지에서 벽돌에 맞아 중태에 빠진 40대 여성(광주일보 9월9일 6면)이 결국 숨졌다.

1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단지에서 벽돌에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김모(여·42)씨가 이날 새벽 3시20분께 숨을 거뒀다. 당시 김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함께 산책을 가던 중 아파트 16층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정수리 부위를 맞았다.

사고 직후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CC)-TV에 녹

화된 화면을 통해 벽돌을 던진 초등학생 5학년 A(12)군과 2학년 B(9)군·C(9)군 등 초등학생 3명을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군 등은 이날 아파트 옥상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바닥에 놓여있던 벽돌을 무심결에 아래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 등은 자신들이 던진 벽돌에 맞은 김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사고를 직감했으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각각 학원이나 집에 가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사망한 점을 토대로 A군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A군 등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14세 이하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A군 등은 소방법에 따라 화재시 대피를 위해 열어 둔 문을 통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옥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김씨 역시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며 “초등학생들이 무심코 저지른 행동으로 큰 비극이 일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희호기자 kimho@kwangju.co.kr



가다 서다... 줄 잇는 귀경 차량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3일 오후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 인근에 귀경 차량이 줄을 잇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목포에서 승용차로 서울 도착까지 약 5시간30분 가량이 소요됐다.

황기조중=광주시 소방항공대 박창순 대장·문연성 부기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원침 (8394) 김종두



공무원 등 화이트 칼라 성범죄 크게 늘었다

공무원이나 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직종의 성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은 1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의 132명과 비교해 32%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 범죄 증가율(19%)보다 13% 포인트 높았다. 공무원 성폭력범은 2008년 124명, 2009년 139명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의자 중 전문직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문직 성폭력 피의자는 622명으로 3년 전인 2007년의 436명에 비해 43% 증가했다.

45년만에 값은 양복값 50만원

○45년 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양복 값 50만원을 주지 못한 일을 후회하며 주인을 수소문했던 한 노신사(광주일보 8월 22일 6면)가 장성군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이를 갚아 화제.

○지난달 18일 “45년 전 교복 집 사장님과 양복점 사장님을 찾아 달라”는 사연을 적은 편지와 함께 50만원 짜리 수표 2장을 보냈던 A(서울)씨의 부탁으로 장성군은 지난 10일 양복점 주인을 찾아 50만원을 전달.

○A씨는 1966년 황룡면 황룡리의 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종교교과정을 가르치면서 교복을 단체로 맞췄는데 교복 판매점과 양복점에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장성을 떠났다고 편지에 적었는데, 장성군은 당시 양복점을 운영했던 B씨를 찾아 50만원을 전달했으나 교복 집을 찾지 못해 A씨의 뜻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교복값 50만원을 기탁.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월 9일 공무원 시험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일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승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행정, 세무, 경찰, 교원임용, 교정,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합승기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행정, 세무, 경찰, 교원임용, 교정,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합승기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법원서기보

법원서기보, 법원서기보, 법원서기보

강의시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합승기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소방직(전문)

소방직, 소방직, 소방직

강의시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합승기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지방직(전문)

지방직, 지방직, 지방직

강의시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합승기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7급 경찰직

7급 경찰직, 7급 경찰직

강의시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합승기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9급 야간반

9급 야간반,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8:00 - 22:00 (2개월 완성)

합승기간: 18:00 - 22:00 (2개월 완성)

농업직/기술직

농업직, 기술직, 농업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합승기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

강의시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합승기간: 09:00 - 03:00 (2개월 완성)

개강 10월 4일

선착순 모집, 조기마감유망!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관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